

월요광장



정유진
코리아컨설팅 대표

추석이 코앞이다. 근래 추석이 다가오는 걸 새삼 느끼게 된 것은 지인들과의 전화 통화에서였다. 이번엔 시댁에 가야 할 것 같으며, 신경 쓸 일이 많으며, 모두들 명절이 지나고 나서 보자고 한다. 백신 덕에 방역 수칙을 잘 따르지만 한다면 지난해부터 보기 힘들었던 가족을 추석에 만나 볼 수 있게 되었으니 반가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살던 가족이 명절을 함께 보낼 생각을 하니 복잡한 심경이 들기도 하는 모양이다. 어느 신문사에서 지난해 이맘때 추석을 앞두고 실시했던 설문조사가 생각난다. 문화 중 어른들께 제일 듣고 싶은 말에 대한 응답으로는 ‘안 와도 된다’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결혼한 여성들에게 명절이란 걸 결코 즐거운 가족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사실로 인식된 지 오래다.

스트레스로 인해 명절 직후 이혼율이 높다는 말은 번번이 인용되어 이제는 상용구가 되었다. 젊은 세대들은 명절 때마다 만나는 가족과 친지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신경이 쓰인다는 글을 온라인상에 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고 있다. 추석을 떠올리며 가족 구성원이 각기 즐거움보다는 편치 않음을 느낀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돌이켜보면 언택트 명절이 좋은 추억만을 만들진 않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동을 자제하느라 지난 설과 추석에도 가족과 친지 방문 대신 통신과 온라인 매체에 의존해 서로의 안부 인사를 나눌 수밖에 없었다. ‘안 와도 된당께’, ‘불효자는 읍니다’ 등 전국 곳곳에 내걸렸던 구수한 사투리와 익살스러운 문구를 담은 플래카드가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가족의 정을 직접 느끼며 나누고 공유하기에는 아쉬움과 쓸쓸함이 더 남는 명절이었다.

무더위가 한창이었던 올 8월, 79세 되신 시어머니께서 여러 불편을 감수하시고 독일 함부르크에서 광주까지 먼 길을 오셨다. 2년이 넘도록 못 뵈던 어머니와 나는 3주간의 합숙 아닌 합숙 시간을 보냈다. 함께 살지 않았던 가족을 오랜만에 만나니 좀 불편하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유통기간 지난 냉장고 안 식재료들이 사정없이 들끓고, 집안 곳곳에 숨겨둔 정리 정돈 안 된 물품들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하지만 그리웠던 가족의 만남은 의미가 있었다.

할머니는 손자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2차 세계대전 중 교편을 잡으며 어려운 환경에서 5남매를 홀로 키우 내신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성장한 형제들 사이에서는 그동안의 좌절과 슬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라면 선택 하지 못할 대화까지도 오고 갔다. 결국 초등학교 손자 녀석이 할머니에게 맹랑하게 불었다.

“할무트(어머니 이름), 근데 이번에는 왜 자꾸 죽는 것에 대해 얘기해요?” “죽음은 바로 우리 곁에 있으니 까. 그리고 죽음이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니까.”

가족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생존을 위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다. 이런 가족들에게 문화적 관습이 더해져 만들어진 명절은 공동체적 유대감을 결속시키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뜻깊은 날이기도 하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옮겨 가며 가족의 문화도 많이 변화해 온 탓에 이제는 가족이 만나는 명절은 설과 추석뿐이지만, 명절이 갖고 있는 그 내면의 의미와 미덕을 나누는 일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는 지금 워드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갈 일을 생각하면 모두가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이다. 명절을 앞두고 방역 수칙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해도 코로나 확산 고비 시점에서 가족의 대면 모임을 고집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것인지 누군가는 여전히 회의적일 수도 있겠다. 차례상을 준비하는 수고스러움을 함께 나누고 음복과 덕담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이번 명절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감사하게 다가온다. 어렵게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화에서 서로가 느껴 온 갈등의 소재는 피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마음을 인정하면서 그간 서로가 겪었을 어려움에 위로와 격려를 더해 주는 날이 된다면 우리는 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힘든 때일수록 가족만큼 힘이 되는 것이 어디 있을까. 가족은 삶의 중요한 원천이다.

기고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 성공하려면



배미경
더킹덤 대표이사·호남대 초빙교수

2020 도쿄올림픽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은 종목 중 하나라면 단연 양궁이다. 광주시는 국민적 응원을 받은 양궁의 기세를 몰아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를 나섰다. 이미 정치·경제·교육·체육계 등 각계각층의 인사 97명을 포함한 대회 유치위원회까지 출범시켰다.

광주시의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를 열렬히 환영한다.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를 위해 지어진 광주국제양궁장은 대회 당시 국제연맹 관계자로부터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경기장 중 하나라는 찬사를 받았던 곳이다. 이 자랑스러운 경기장이 유니버시아드 이후 더욱 자주 활용되기를 바랐다. 대한양궁협회가 주관하는 다양한 국내 양궁대회들이 치러졌고, 올해 6월에는 아시아권 양궁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대회 개최 경험도 더했다.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기본 조건인 국제 규격의 대회 시설과 운영의 경험까지 보태져 대회 조직화 역량은 충분하다.

국제스포츠대회를 유치해 본 필자의 경험으로는 대회 유치에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는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 목표 수립이다. 대회 유치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지역의 의견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 둘째는 유치를 위한 전문적인 준비다. 국제대회 유치는 기술적이고 지적인 입찰 과정이다. 시간과 준비가 충분해야 한다.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제대회 유치 승인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하고, 스폰서십을 통해 예산도 든든히 확보해야 한다. 국가의 지원은 국제연맹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다. 국가의 보증에 따라서 치러지는 대회여야 대회의 가치도 높다. 셋째는 국제연맹과의 교섭과 소통 능력이다. 유치 활동은 국제연맹의 유치 절차와 요구 사항을 숙지하여 유치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국제대회는 개최 도시가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큰 계약을 국제연맹과 진행하는 과정이므로 신중하고 전문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국제연맹과 원활한 대화와 소통 아래 진행되어야 대회를 개최하는 과정도 매끄럽다.

유치의 출발 단계에서 지역사회의 동참과 분명한 발전 목표 정립은 필수다. 더욱이 광주처럼 국제 메가 이벤트를 두 차례나 개최한 경험을 가진 도시는 첫 국제 스포츠대회 때와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한다. 대회 개최 이전에 이 대회의 개최를 통해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프레레지시(Prelegacy)와 분명한 목표가 필요하다. 대회의 목표가 도시 브랜드인지, 양궁이라는 스포츠 종목의 발전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목표 과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엑스 텐에 꽂히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광주는 이제 국제스포츠대회의 초짜가 아니다. 월드컵, 유니버시아드, 세계수영대회 등 1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굵직한 국제대회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스포츠 도시다. 실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예컨대 대회의 목표를 도시 브랜드에 둔다면 단일 대회라고 하더라도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2021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개최지인 미국 양크턴은 양궁협회 연설, 현대 양궁월드컵, 세계양궁 콩그레스 등 세계 양궁의 빅3 이벤트를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하는 방식으로 양크턴을 세계 양궁의 허브로 인식시키려 한다. 좋은 전략이라고 본다.

양크턴은 구글의 도시 검색에서도 주요 명소 중의 하나로 ‘미국아외양궁협회 이스턴 양크턴 양궁센터(NFAA Easton Yankton Archery Center)가 소 개될 만큼 양궁이 중요한 도시 브랜드 자산이다. 자녀와 함께 양궁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이라는 댓글 평가가 담긴 만큼 지역의 명소로도 자리 잡았다. 시민에게도 개방되고, 어린 학생들의 양궁 클래스 운영 등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할 사례다.

최미선, 기보배, 안산으로 이어진 광주 양궁의 금빛 계보처럼 이번 대회가 스포츠 도시 광주로의 발전을 향한 황금 화살이 되기를 바란다. 코로나 불무를 시원하게 날려준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 선수의 활시위를 떠올리니 지금도 즐겁다.

기고

광주공항, 시민 재난안전 테마파크로



송창영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

통상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난이나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잇따르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대형 재난은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그 피해가 엄청나다. 불확실성은 높은 데 반해 예측 가능성은 낮아 사전 예방과 초기 대응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2000년대 이후 국내 대형 재난의 96%가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럼에도 중앙양급의료센터와 같이 재난 대응 주요 인프라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근 광역 재난 대응을 위한 방재 거점 공간을 남부지방에 조성하여 균형 발전을 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도쿄 임해광역 방재공원을 조성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 정보를 총괄하고 응급 대책을 조정하는 현지 재난대책본부가 설치된다. 또 수도권 광역 방재사령부 및 광역 지원 부대의 베이스캠프이자 의료 지원 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방재 거점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공원 및 체험시설로

지역 주민들의 재난 안전에 관한 관심 및 의식 수준을 높이고 재난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기관과 관계 기관들이 연계해 방재에 관한 정보 교환, 시뮬레이션, 훈련 등 재난 발생 시에 대비한 활동을 펼치는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은 평상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심 인근에 있어야 한다. 또한 군이나 소방, 경찰 등 광역 지원 부대가 베이스캠프로 활용할 수 있는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군 공항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군 공항 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 새로운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재난 대응 인프라의 불균형 해소의 측면에서 본다면, 군 공항 부지를 최대한 보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교육 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난안전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시민 주도형 재난안전 미래센터나 광역재난 전문의료원, 재난안전산업진흥원과 같은 재난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재난안전 미래센터는 재난안전 관련 시민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국제안전기구 유치, 재난안전분야 공공기관 및 민간 조직을 유치하는 등 재난안전 클러스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광역재난 전문의료원은 남부권 대형 재난 발생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의료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도 있다.

재난안전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환경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산업 발전 거점을 조성할 수도 있다. 이런 기관들이 연계하여 방재에 관한 정보교환, 각종 시뮬레이션과 훈련 등 재난에 대비한 활동을 전개하는 장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및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방재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재난에 대한 지식과 기술, 방재 의식을 일깨우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재난 발생 시에는 광역 지원부대의 베이스캠프나 광역 물자 운송 센터로 활용하는 등 재난 대응 거점으로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여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군 공항 이전 이후 남은 부지에 주택단지 조성하거나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방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형 재난의 특성과 이에 반해 수도권에 집중된 방재 인프라를 고려해본다면, 군 공항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여 평상시에는 시민 재난안전 테마파크로 활용하다가 비상시 광역재난 대응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광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의식이 높은 인권 도시이다. 최고의 인권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인권 도시의 품격에 어울리는 전문성을 함께 갖춘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社說

5·18 조사위 ‘대면 조사’ 너무 늦긴 했지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가 전두환 씨에게 직접 만나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건강 악화로 기억력마저 흐릿해진 전 씨를 상대로 이제 와서 대면 조사를 해 봐야 무슨 소득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전 씨는 다발성골수종 진단을 받은 데다 5년 전 뇌막을 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정년으로 알려져 이번엔 실시되는 대면 조사가 ‘보여 주기식 쇼’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5·18조사위는 애초 진상 규명 조사 시작 1년 뒤부터 가해자에 대한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지만,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대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어 늦장 조사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5·18조사위는 지난 1일 전 씨를 비롯해 신군부 주요 인물 다섯 명에게 5·18 진상 규명을 위해 직접 만나 조사하겠다는 공

지를 보냈다고 한다. 전 씨 외에 노태우 당시 수조경비사령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황영시 육군참모차장,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이 그 대상이다. 5·18조사위가 보낸 공지는 ‘연령·건강 등을 고려해 방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알리는 이른바 ‘내용중량’ 형태의 서한문이다.

조사위는 대상자들의 조사 불응에 대비,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른 동행명령장 발부, 고발 및 검찰 수사 요청, 특별검사 임명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조사위의 대면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생색내기 조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조사위에도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만 5·18 학살 주범들에 대한 대면 조사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하지만 5·18 당시 지휘 및 발표명령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직접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지금까지도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석 물가’ 비상…서민 부담 덜 대책 세워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물가가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는 10개월째 상승세를 이어 가며 지역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달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9% 상승했는데 특히 광주의 외식 물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4%대(4.1%)로 치솟으며 5개월 연속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 구내식당 식사비(11.9%)와 갈비탕 값(11.5%)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연초부터 이어진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때문이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73개 품목 가운데 광주는 49개, 전남은 40개의 가격이 올랐다. 광주의 경우 달걀 가격이 전년보다 무려 64.3%나 올랐고 시금치 41.0%, 국산 쇠고기 12.0%, 쌀 14.1% 등 밥상 물가 대부분이 상승했다.

문제는 농축수산물뿐만 아니라 집세나

개인 서비스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전남 휘발유 가격은 지난 5월부터 넉 달 연속 20%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광주 집세도 전년보다 0.8% 올랐다. 이 같은 물가 상승은 국제유가 및 농축수산물 생산원가가 뛰며 수요와 공급 쪽에서 상승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정부지도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는 서민 가계에 큰 타격을 입힌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 상승으로 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주부터 지급되는 11조 원의 국민지원금은 생활고를 일시적으로 덜어줄 수 있지만 한편으로 물가 오름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와 지자체는 추석 성수품과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물가 대책 수립으로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걸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오죽하면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을까. 그래서 정치는 가장 고난도의 직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나라를 이끌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와 함께 지금 국민의 마음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변해 갈지, 그 마음을 어떻게 얻어야 할지, 다양한 해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는 ‘여론조사’ 결과는 물론 정치평론가나 컨설턴트의 전문적인 의견, 그리고 예술가나 점술가의 ‘신통한’ 예언과 조인들도 신문 방송, SNS, 각종 지라시 등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

다양한 해설과 의견이 활발히 유통되는 것은 정치에서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람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거니와 그 과정에는 거의 무한하다고 할 정도로 변수가 많다. 그런 만큼 출사표를 던진 이들로서는 복잡다단한 정세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 주

는 조인이 절실하기 때문일 터다.

국내 정치권 최고의 전략가로 꼽히는 김중민 전 국민의원 비대위원장과 야권 지지율 1위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 유명 예술인과 만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물론 ‘집단 과학의 시대에 무슨 예술가냐?’라고 할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천변만화한 국내 정세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의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듯하다. 예술가나 점술가의 경우 ‘주역을 비롯해 천문·지리·인사 등을 다루는 명리학’ 또는 ‘정해진 운명’이라는 이질적 프레임을 통해 사회 현상을 분석

하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평가는 또 결정을 앞둔 후보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확신을 심어 주는 부수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

예술이나 사주 및 점을 받아들이거나 배척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것일 터다. 하지만 다소 낯선 언어와 논리로 전개되는 이들의 분석 역시 ‘현재를 분석해 미래를 전망한다’는 점에서 흥미롭기는 마찬가지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